

캔버스에 펼쳐낸 고요와 멈춤...황홀경에 대한 사유

진원장 작가, 11일부터 독일 베를린서 전시

마이클 쉘츠 컨템포러리 갤러리 초대전
‘고요한 멈춤’ 주제...신작 등 12점 소개



조금은 달라졌다. ‘꿈의 정원’ 연작에서는 눈이 시릴 듯한 화려한 색채의 향연이 펼쳐졌다면, 이번엔 색에 대한 탐닉을 어느 정도 절제한 듯 하다. 화면 안에 흐드러져 있던 꽃과 나뭇잎, 한 곳만을 지그시 응시하고 있던 소녀의 모습도 이제는 사라졌다. 캔버스 안에는 시공을 초월한 고요와 멈춤이 느껴진다. 작가의 회화적인 사유가 깊어진 탓이라.

진원장(67·사진) 작가의 신작 ‘고요한 멈춤’(Still Point) 시리즈에 대한 소개다. 진 작가는 이 신작들을 들고 멀리 독일로 떠난다. 베를린의 마이클 쉘츠 컨템포러리 갤러리(Schultz Contemporary Berlin)의 초청을 받아 전시를 열기 위해서다.

진원장 작가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독일 베를린 마이클 쉘츠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작가로서는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갖는 국제전이다.

전시는 우연한 기회에 이뤄졌다. 2017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오늘의 작가전’을 관람하고 색채의 향연에 매력을 느낀 마이클 쉘츠 관장이 진 작가에게 전시 제안을 해 선사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고요한 멈춤’을 주제로 한 신작을 선보인다. 지난해 2월, 34년여간 재직했던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정년퇴임 한 후 오롯이 화실에 서만 보내며 작품 창작에 매달렸다.



진원장 작 'still point 5'



진원장 작 'still point 3'

신작 ‘고요한 멈춤’에 대한 영감은 경북 영주 부석사의 한 호수에서 얻었다. 아침 일찍 바라본 호수에 대한 느낌, 고요한 정원, 흐드러진 꽃 등을 보면서 자연에 대한 경의심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터키여행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번 전시 작품들로 쏟아냈다. 전시 작품들은 모두 100~200호 크기의 대작이며, 12점을 선보인다. 이중 신작이 90% 비율을 차지한다.

진 작가는 “‘꿈의 정원’은 풍부한 색감으로 리듬감이 느껴지는 화면이라면, ‘고요한 멈춤’ 시리즈는 관조의 세계를 나타내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순간의 멈춤, 고요와 사유의 시간을 통해 황홀경에 달하는 최고로 높은 경지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작가는 개인전 27회와 광주시립미술관 오늘의 작가 초대전, 미국 찰스 아담스 갤러리 초대전, 미국 한국문화원 초대전, 두산아트센터 초대전을 비롯한 각종 전시에 참여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운영위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교수, 조선대 미술대학장, 조선대 미술대학 순수미술학부 서양화전공 명예교수 등을 역임했다.

전시 오픈은 11일(현지시간) 오후 7~9시 열린다. /정겨울기자

뮤지컬로 만나는 ‘레미제라블’

광주시립합창단 13-14일 문예회관 대극장
5·18 39주기...황유순 지휘·광주시향 협연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13-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178회 정기연주회 콘서트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선보인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세계적인 프로듀서 카메론 매킨토시가 뮤지컬로 제작한 것으로 1985년 10월 런던에서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는 명작이다.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의 저항 정신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애를 그린 장엄한 대형 뮤지컬로, 원작의 문학적인 깊이, 극적인 재미와 함께 완성도 있는 음악으로 감동적인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광주시립합창단원들은 각자의 배역에 맞게 노래와 연기를 펼쳐 보이며 평소엔 볼 수 없었던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넘버 15곡을 들려준다.

곡을 들려준다.

지휘봉은 황유순 지휘자가 잡는다. 황유순은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독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성악과 독일가곡을 전공한 후 뮌헨·함부르크 방송합창단, 방송합창단, 독일 에센 오페라극장에서 단원으로 활동했다. 독일 에센 국립음대에서 합창지휘와 오케스트라 지휘, 함부르크 브람스 콘서트토리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 후 귀국했다.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울대·전남대에서 합창으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라이브 반주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협연한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gjart.gwangju.go.kr>)에서 가능하다.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공연 문의 062-415-5203) /정겨울기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City of Media Arts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4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재선정’

2014년 지정 후 첫 평가심사서 ‘매우 만족’ 받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가 2014년 지정 후 첫 평가심사에서 ‘매우 만족’이라는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유네스코로부터 재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8일 “2014년 12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광주는 내실을 다져온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4년마다 받아야 하는 평가심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첫 번째 평가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기다려온 광주는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우수 평가’란 결과를 통보받음

으로써 창의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향후 진행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광주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의장도시로서 펼쳐온 활발한 국제적 행보와 교류 업적을 유네스코 연례총회와 미디어아트분과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 향후 미디어시티로서의 잠재성이 높은 도시로 주목받게 됐다.

광주는 그동안 기울여온 실천적 노력 즉, 유네스코가 제시한 ‘문화적 창의적 자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도

모’를 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 점을 비롯해 광주의 미디어아트 발전을 위한 전략과 구조적 접근, 그리고 계획 등에 대한 현상을 인상 깊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유네스코 측은 특히, 미디어아트에 인권, 휴머니즘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를 부여한 점과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미디어아트 플랫폼 6개 공간)과 같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인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반면, 유네스코는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확대하고 나

아가 미디어아트 영역을 특정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미디어아트 표현의 창조성을 확대할 것을 지적했다.

유네스코는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에 가입해 광주지역 내 또는 국내외 기관과 협력(유네스코 창의도시 협의체·소위원회 운영, 창의도시 간 교류 등)을 통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을 다져가는 노력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부의장도시로의 활동 등을 예로 활용하며 광주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 (문의 062-670-7491) /정겨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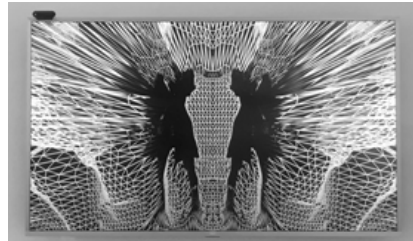
빛으로 구현한 작가들의 시선 ‘알지비st’展

국립미술관 미디어아트 특별전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품 전시를 갖는다. 국립미술관(관장 윤영월)은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미디어아트 특별전 ‘알지비st’를 개최한다.

전시 ‘알지비st’(RGBst)는 광원과 빛을 활용한 작가들의 모임 이름이다. ‘RGB’는 ‘빛의 삼원색’을 뜻하는 ‘빨간색(Red), 녹색(Green), 파란색(Blue)’을 이용해 색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전시에는 김명우, 나명규, 문창환, 박상화, 유지원, 이이남, 이정기, 임용현, 정선희, 정운학 작가 등 10인의 작가가



임용현 작 'who is you'

참여해 작품 10점을 선보인다. 각자의 기법으로 빛을 담아 작업 방향을 가지고 있는 중견작가들이 만큼 작가만의 고유성, 특색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다. 디지털 언어를 통한 감각의 변화와 기술발전의 다양한 창작물을 보여준다. (전시 문의 062-232-7335) /정겨울기자

전 세대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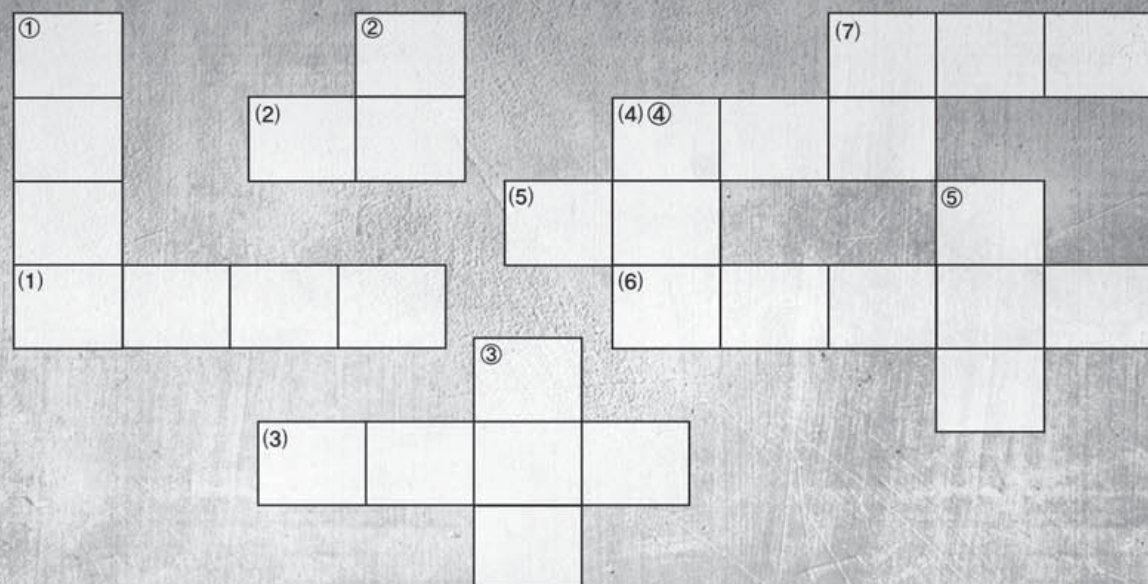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6월, 전국 극장 대개봉

단체관람 신청 ☎ 062.376.8500 (광주CBS 총무국)

www.facebook.com/cbscinema 카카오톡 ID CBS시네마



[가로 열쇠]

- 전 세계 200여개 언어로 번역된 존 번연의 저서, 세기의 베스트셀러
-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할 복된 소리
- 영화에서 '크리스천이 천국도시를 찾아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살던 회랑도, 기쁨도 없는 도시 (힌트: 영화 시놉시스)
- 모세오경 중 다섯 번째 책
- '크리스천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 여행에 동참하게 된 친구, 바라고 원함 (힌트: 영화 캐릭터 설명)
-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촬영기법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
-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분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를 뜻함, 영어로는 필그림(Pilgrim)

[세로 열쇠]

- 열방도시를 떠나 천국도시로 여행을 시작하는 순례자, '천로역정' 주인공 (힌트: 영화 캐릭터 설명)
- 영화에서 '크리스천보다 먼저 천국을 찾아 모험을 떠난 여행자, 믿는 마음 (힌트: 영화 캐릭터 설명)
- '크리스천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 (힌트: 영화 캐릭터 설명)
- 믿음, 소망, 사랑을 뜻하는 한자어
-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소설 '천로역정'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어드벤처라고 불린다. (힌트: 30초예고편)

● 힌트는 좌측 QR코드 스캔 또는 아래 URL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bit.ly/천로역정_영화정보)

영화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지에서 예고편을 보시고 퍼즐을 완성하여 5월 31일까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나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4층 CBS시네마극

●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영화 예매권을 드립니다. ● 정답과 당첨자는 6월 7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수입/배급 CBS